

교토 대학교¹⁾ 고등교육연구개발추진센터

민혜리
서울대 교수학습개발센터
교육지원부 연구부교수

교토대학교 고등교육연구개발추진센터를 소개하기 전에 최근 일본 고등교육개혁 동향에 대해 간단히 살펴보려 한다. 한국의 대학들이 대학교육개혁에 나서는 것처럼, 일본도 역시 2000년대에 다양한 고등교육개혁안을 통해 대학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일본 고등교육개혁의 이해>

2004년 9월에는 2015년부터 2020년을 상정한, 일본의 고등교육이 추구해야 할 미래상 즉 고등교육의 로드맵 구상이 시작되었다. 심의 및 중간보고를 거쳐 2005년 2월 1일에 최종적으로 답신으로 발표된 '일본의 고등교육의 미래상 (답신)'에는 지식기반사회로의 이행과 국제경쟁의 심화에 따른 정부 차원에서의 고등교육 개혁의 방향성과 구체적 시책이 제시되어 있다.

여기서 제시된 개혁의 방향성으로서는 각 고등교육기관의 개성화, 특성화 및 기능분화, 사회와 고등교육과의 연계, 국제화 및 정보화 등이 제시되어 있으며, 고등교육의 질 보장을 위한 시책으로 평가 제도의 도입, 각 기관 교육과정의 개선 및 충실화, 국/공/사립대학의 특색화, 고등교육기관 설치 형태 다양화를 위한 정책이 마련되었다.

1) 교토대학 고등교육연구개발추진센터 (Center for the promotion of excellence in higher education) http://www.highedu.kyoto-u.ac.jp/index_center.html

2) http://www.mext.go.jp/a_menu/koutou/kaikaku/index.htm

(1) 일본 고등교육 개혁의 비전: 일본의 고등교육의 미래상²⁾

21세기 예상되는 사회상을 '지식기반사회'로 특징 짓고, '지식이 국경을 넘어 생

성 및 전달되며 국제적 경쟁과 기술혁신이 끊이지 않는' 지식기반사회에서는 고도의 전문지식뿐만 아니라, 정신적 문화적 측면과 물질적 경제적 측면에 있어서 균형이 잡힌 인간성을 추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특히, 국내적, 국제적인 상황이 유동적이고 복잡해지는 불투명한 시대를 맞이하면서 상호 신뢰와 공생(共生)의 개념이 중요해지며 그 기반으로 타인의 역사, 문화, 종교, 풍습, 습관 등을 이해/존중하고 타인과 적극적으로 커뮤니케이션할 수 있는 능력이 중요해 진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고등교육기관은 위와 같은 인격의 형성, 능력의 개발, 지식의 전수, 지적생산활동, 문명의 계승 등 폭 넓은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사회를 주도적으로 이끄는 역할을 수행해야 함을 상기시키고 있다.

고등교육의 개혁을 필요로 하는 일본 국내의 상황으로는, 국내의 인구 변동 등에 따른 고등교육의 변화와 국가의 역할에 대하여 제시되어 있다. 일본은 고등교육기관 입학 연령인 18세 인구의 계속되는 감소와 대학 설치 기준의 탄력화에 따라 2007년에는 대학 및 단기대학의 수용력(입학자수÷지원자수)이 100%에 달할 것이라고 예측되고 있다. 지원자가 100% 고등교육기관에 입학하는 이른바 '전입시대(全入時代)'를 맞이하여 국가의 역할 또한 이제까지 '고등교육계획을 책정하고 규제'해 왔던 역할에서 '미래상의 제시와 정책 유도'의 역할로 이행해야 할 시기가 도래하였다고 언급하고 있다.

특히 이렇듯 양적측면에서의 수요가 거의 충족된 보편적인 교육으로서의 고등교육에 대하여 정부가 제시하고 있는 미래상 중 하나는 학습 기회에 주목한 '보편적인 접근(universal access)'의 실현이다. 즉 분야나 수준 면에 있어 누구나가 언제든지 스스로의 선택에 따라서 배울 수 있는 고등교육의 정비이다.

위와 같은 국제적, 국내적 변화와 요청에 따라 고등교육기관이 추구해야 할 것 중 하나는 기능 분화와 그에 따른 개성 및 특성의 명확화이다. 전체적으로 학습자의 연령 및 특성이 다양화됨에 따라 고등교육도 대학, 단기대학, 고등전문학교, 전문학교 등이 그 학교 종류에 따라 그에 요청받는 역할이나 기능을 충분히 고려한 교육과 연구를 전개하고 개성과 특성을 한 층 명확히 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특히 대학이 추구해야 할 기능 및 특성이 강조되어 있으며 구체적으로는 (1) 세계적 연구/교육 거점, (2) 고도의 전문 직업인 양성, (3) 폭 넓은 직업인 양성, (4) 종합적 교양교육, (5) 특정 전문적 분야(예술, 체육 등)의 교육 및 연구, (6) 지역의 평생학습기회의 거점, (7) 사회공헌기능(지역공헌, 산학관 연계, 국제교류 등)을 제시하고 있다.

(2) 교육내용 및 방법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

대학교육에 관해서는 ‘특색 있는 대학교육지원 프로그램’, 대학원 교육에 관해서는 ‘대학원 교육개혁 지원 프로그램’과 ‘매력 있는 대학원 교육 이니셔티브’가 설정되어 있다. 그 중 학부 단계의 대학개혁을 겨냥한 ‘특색 있는 대학교육지원 프로그램’의 내용을 살펴보겠다.

이 프로그램은 2005년도부터 문부과학성이 중심적인 대학개혁프로그램으로 추진하고 있는 ‘좋은 실천 (Good Practice, 이하 GP)³⁾의 일환으로 진행되고 있다. GP는 각 대학, 단기대학, 고등전문학교(이하 대학 등)가 실시하는 교육개혁활동 중에서 우수한 활동을 선정하여 지원하고 그 활동에 대하여 사회에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다른 대학 등이 그를 참고하여 교육개혁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대학교육개혁방안이며 ‘특색 있는 대학교육지원 프로그램(특색 GP)’과 ‘현대적 교육 요청 활동 지원 프로그램(현대 GP)’의 두 가지로 이루어져 있다. 이 글에서 소개할 교토대학교 고등교육연구개발추진센터도 이 다양한 GP 프로그램 수행을 통해 대학교육개혁에 앞장서고 있으며, 특히 ‘상호교류형 FD’ 활동은 가장 핵심적 활동이다.

〈교토대학교 고등교육연구개발추진센터〉

교토대학에서 대학 교육의 연구 및 지원을 맡고 있는 고등교육 연구 개발 추진센터 (Center for the promotion of excellence in higher education) (이하 센터)는 2003년에 발족하였으며 이 센터는 특히 고등교육에 있어서의 교수 시스템의 실천적 연구를 중심적인 연구 테마로 설정한 것이 특징이다. 이 센터는 고등교육 교수시스템연구개발부문, 공동교육커리큘럼기획개발부문, 정보미디어교육개발부문의 3부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센터의 모체는 고등교육 교수시스템개발센터로서 1994년 6월에 학내 공동 이용 시설로서 설립되어 대학교수법 연구, 대학교육평가시스템연구, 대학교육과정연구의 3 연구영역간의 실시/평가/입안의 순환을 통하여 실천 연구를 수행하여 왔다. 구 센터는 이 연구를 통해 교토대학의 교육개혁에 공헌하였으며 다른 고등교육기관에는 이와 유사한 연구 시설이 없었으므로 일본의 고등교육개혁에 있어서의 실천적 연대를 낳는 계기를 마련하기도 하였다. 현 센터의 고등교육교수시스템 연구개발 부문은 이제까지의

3) http://www.mext.go.jp/b_menu/houdou/19/08/07080131/001.htm

3 연구 영역에 교양교육개선연구 영역을 더한 4 연구영역에 관한 실천 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며 전학공동교육커리큘럼 기획개발부문 및 정보 미디어 교육개발 부문은 전학 공동 교육을 중심으로 한 교토대학의 교육을 위한 교육 개발을 수행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두 개발 부문은 전학 공동 교육을 총괄적으로 기획/운영하는 고등교육연구개발추진기구 내의 고등교육연구개발추진부에 참가하여 교육과정의 기획 및 운영을 지원하고 있다. 이하에서는 센터가 실시 해 온 대학 수업의 실천적 연구인 ‘공개실험수업’ 과 ‘상호 연수형FD’ 에 대해서 소개한다.

(1) 공개실험수업

센터에서는 ‘공개실험수업’ 과 그에 대한 수업 검토회를 실시하여왔다. 이 프로젝트는 매일의 일상적인 대학에서의 수업을 대상으로 그 향상을 도모하는 연구라는 점에서 이 센터가 중시하고 있는 실천적인 연구의 대표적 예라고 할 수 있다. ‘공개실험수업’ 은 수업실천, 수업연구, 상호연수라는 세 가지 측면을 가지고 있다. 즉 공개실험수업이란 교수자와 수강생과의 사이에서 상호행위를 반복하는 것을 통하여 양자의 상호 발전을 도모하는 의미에서 ‘수업실천’ 이며 일상적인 상황에서 생태학적 연구 및 기기나 조사표 등을 사용하는 실증적 연구를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실험수업’ 이며 수업관찰과 수업 검토회를 통하여 교수자와 관찰자와의 상호 연수(FD)를 도모한다는 점에서 ‘공개 수업’ 인 것이다.

① 수업실천, 수업연구, 상호연수

공개실험수업의 기본적인 목적은 수업실천과 수업연구와 상호연수를 함께 달성하는데 있다. 일본에서는 고등교육에 있어서의 수업실천이 의식적으로 전개되어 오지 못하였다. 고등교육에서도 수업실천의 향상이 자각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필요성에서 교토대학의 공개수업 프로젝트 또한 시작되었다. 그 중에서도 교토대학의 프로젝트는 교수자와 학생들의 상호작용을 잘 전개하고 조직하는 것에 특히 강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상호행위의 조직화에는 이하 세 가지 하위목표가 있다. 먼저, 상호행위를 통하여 교수자 자신이 교육자로서도 연구자로서도 성장하는 것, 두 번째로 학생이 자발적이고 능동적으로 수업에 참가하여 성장하는 것, 세 번째로 교수자와 학생의 상호 성장을 통하여 학문교육공동체를 만들어 내는 것이다.

② 공개실험수업에서의 FD의 의미

교원의 교육자, 연구자로서의 성장, 학생의 성장, 그리고 상호 성장을 통한 학문 공동체 형성을 위하여 빼 놓을 수 없는 것이 FD이다. FD는 본래 대학교수의 ‘능력’ 개발을 의미하는데, 이 능력은 본래 연구능력, 교육능력, 조직경영능력, 사회적 서비스 능력 등 다채로운 의미를 포함한다. 그런데 오늘날의 논의가 집중하고 있는 것은 ‘교육’ 능력이다. 또한 FD가 많은 경우 ‘대학교원 개인의 교육능력의 개발’로 한정적으로 이해되고 있다. 그리고 ‘개인의 교육능력’은 마치 교원 개인에게 귀속되는 것이라 생각되어 학생과의 관계에서 생동적으로 나타나는 상호행위의 힘임을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 많지 않다. 이러한 능력의 개인화 및 객관화와 관련하여 일반적인 FD프로그램은 전달 강습과 같이 개개인에게 위에서부터 가르치면 된다는 환상을 가지고 있다. 여기서는 능력이 개인화, 객관화되어 이해되고 있을 뿐 아니라 대학교원이 무엇을 어떻게 가르치면 좋은지에 대한 막대한 결정능력을 가지는 소위 독립적인 경영자인 것이 망각되고 있다. 즉, 교육자의 능력개발은 경영자 상호간의 의식적, 자각적, 집단적인 상호형성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FD의 상호성이 종종 이해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사진출처: http://www.highedu.kyoto-u.ac.jp/gp/gp_kokai.htm

〈그림 1〉 오오쓰카 유시쿠 교수의 ‘교육평가의 기초1’ 공개 수업과 수업 후 검토회의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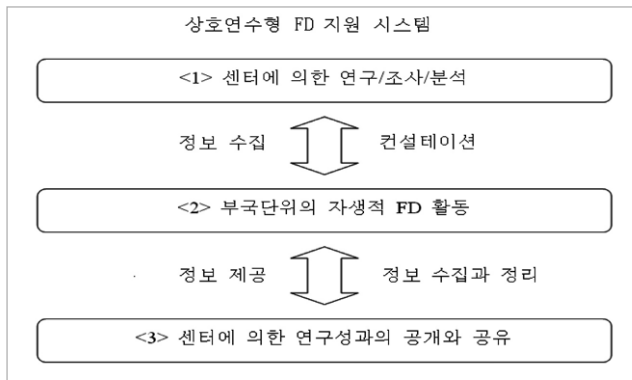
(2) ‘상호 연수형FD’의 조직화에 의한 교육개선

교토대학 고등교육연구개발추진센터에서는 공개수업을 중심으로 한 ‘상호 연수형 FD’를 지속적으로 수행하여 2004년부터는 문부과학성의 ‘특색 있는 대학교육지원 프로그램(이하 GP)’에 채택되어 2007년 현재에 이르기까지 정부의 지원하에 상호 연수형 FD를 진행시키고 종래의 연구에서 확장하여 공학부 교육과의 연계, 지역 대학과의 연구 교류 등으로 발전시키고 있다. 이하에서는 ‘상호 연수형 FD’의 사례를 소개한다.

① GP 기획의 목표

본 GP 프로젝트 ‘상호연수형 FD의 조직화에 의한 교육개선’은 일본의 FD의 현실에 진지하게 대응하고자 하는 기획이다. 이제까지 일본의 FD는 많은 경우 대학교육의 존재 양식에 관한 일반적인 논의나 선진적인 사례 및 관련 데이터의 소개, 구체적인 교수 법이나 평가법등을 일반적으로 전달하는 ‘계몽형’이었다. 그러나 현 단계에서는 각각의 현장의 고유성이나 특수성을 무시하고 일방적이며 일률적으로 외부로부터의 지식이나 기술을 강요하는 FD는 거의 무의미해 졌다. FD가 상당히 보급된 현재로서는 각 대학의 교육당사자들이 자신의 현장성에 뿌리를 내리고 자신들이 조직하는 자생적인 ‘상호 연수형 FD’가 필요하다.

교토대학은 이러한 조직화를 이미 어느 정도 달성하여 왔다. 즉 ‘자유로운 학풍’을 이념으로 다양하고 자생적인 상호 연수형 FD활동이 전개되어 이를 지원하는 시스템도 고등교육연구개발추진센터(이하 센터)를 중심으로 개발되어 왔다. 센터에서는 교토대학 내부의 활동에 직접, 간접적으로 관여함과 동시에 센터 독자적인 FD 활동도 전개하여 왔다. 공개실험수업, 학부공개수업 더 나아가서는 출판물 간행, 공개 연구회, 포럼, 메일링 리스트, 홈페이지 정비 등이 그것이다. 이렇게 하여 센터는 교토대학 내에서 ‘자생적 FD 활동’ 과 ‘센터에 의한 FD 관련정보의 총괄 및 공개, 컨설팅’ 과의 사이에 상호 촉진적 순환을 중핵으로 이하와 같은 상호 연수형 FD지원 시스템을 구축하여 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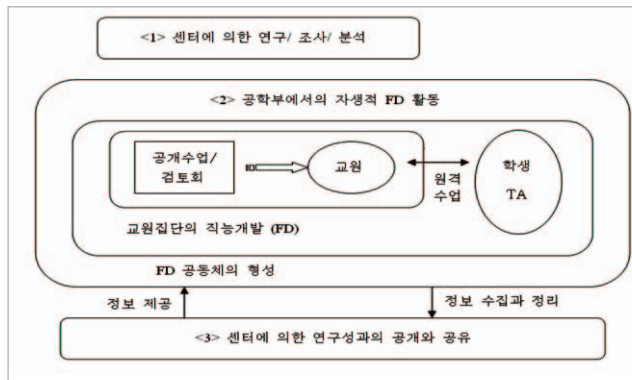
출처: 교토대학 고등교육연구개발추진센터(2006), “상호 연수형 FD의 조직화에 의한 교육개선 2006”

〈그림 2〉 상호 연수형 FD 지원 시스템

그러나 이들 FD활동의 전교 차원의 조직화는 아직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를 상호 연관 시켜 그 성과를 공유하고 조직화하여 교토대학 전체의 교육개선을 도모해야 한다. 본 GP 프로젝트가 시도하는 것은 이러한 조직화에 의한 교육개선이다.

② 상호 연수형 FD 사례: 공학부 FD 활동

공학부는 이제까지도 적극적으로 교육개선을 추구하여 왔는데 현재로서는 원격교육, 공개수업, 수업평가조사와 졸업연구조사에 의한 커리큘럼 개혁 등 세 가지 과제에 직면하고 있다. 본 프로젝트는 이 세 가지 과제에 대응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 세 가지 과제는 3자가 동시에 실시됨에 의해 공학부의 교원집단을 FD 공동체로 조직화하는데 공헌한다. 센터는 이러한 공학부와의 연계실천의 성과를 공개연구회, 연구보고, 웹의 '대학수업 네트워크' 등에서 공개하여 더욱 정비된 관련정보전달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동시에 이제까지와 같이 다양한 자생적인 FD 활동에도 참여하여 전교 차원에서의 상호연수형 FD 조직화를 추구한다.



출처: 교토대학 고등교육연구개발추진센터(2006), "상호연수형 FD의 조직화에 의한 교육개선 2006"

〈그림 3〉 상호연수형 FD 조직도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교토대학이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수업공개와 대학 교원 동료간의 검토회를 통하여 학생과 교원의 학문공동체를 형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상호연수형 FD는 교토대학 전교로 확장되었으며 또한 지역의 대학 간에 연계 및 협력 관계를 구축하기까지 이르렀다. 교토대학의 사례에서 주목할 만한 것은 교원의 직능 개발 모델을 외부로부터 무조건적으로 도입하거나 대학 교원에게 그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대학 교원의 자립성과 전문성을 존중하여 자생적으로 교육개선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교원 개인의 능력 개발이라는 시점보다는 학문공동체 안의 교원의 동료성 구축을 통하여 함께 성장한다는 시점을 도입하여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점도 특기할 만 하다.

우수강의시리즈와 교수법 가이드

다양한 우수강의 사례를 발굴하여 좋은 강의의 모델로 활용함으로써 서울대학교 강의의 질 향상에 기여할 목적으로 '서울대학교 우수강의시리즈'를 제작하였습니다. 또한 교수자의 교수(teaching) 능력 향상에 도움을 주기 위한 수업 운영기술을 담은 '교수법 가이드'를 발간하여 배포하고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은 교수학습개발센터 교육지원부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교수학습개발센터 교육지원부(880-5387, <http://ctl.snu.ac.kr>)